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이번 주 미 대선과 연준의 금리 0.25% 인하 가능성
- CNBC: 일부 월가 CEO,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의심
- WSJ: 연준, 이번 주 0.25% 금리 인하하지만 '내심 복잡한 상황'

#### [미국 대선]

- Bloomberg: 미 대선의 세금, 관세 정책 등 주요한 이슈들
- Bloomberg: 미 대선 여론 조사,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합주에서 거의 근소한 차이

#### [주택]

- Bloomberg: 전형적인 주택 소유자는 노인층, 싱글, 여성이 더 많아

#### [오일]

- WSJ: 유가 상승... OPEC+ 증산 계획 연기로

#### [전기차]

- Bloomberg: 중국 전기차 주식 랠리, 10월 판매량 증가

#### [반도체]

- WSJ: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TGI 프라이데이 파산 신청
- CNNBusiness: 웬디스, 140개 매장 폐쇄
- WSJ: 몽클레르 입찰 가능성 보도 이후 버버리 주가 급등
- WSJ: 앞으로 편의점 통합이 시작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WSJ: Week Ahead for FX, Bonds: All Eyes on U.S. Election; Fed Expected to Cut Rates**

#### **이번 주 미 대선과 연준의 금리 0.25% 인하 가능성**

- 내일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팽팽한 대결인데, 베팅은 트럼프의 승리 쪽에 더 가능성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는 해리스의 박빙 우세를 보도하고 있다.
- 트럼프는 무역 관세율을 크게 올릴 것으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집권 시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미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 목요일에 연준의 11월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0.5%의 빅컷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경제가 견

조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 이번 주에 주요 미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내일 화요일에는 ISM의 10월 서비스 활동 지수가 발표된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시간대학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된다.
- 연방 재무부는 오늘 월요일 국채 3년물 580억 규모를 경매하고, 화요일에는 10년물 420억불, 수요일에는 30년물 250억불 규모를 경매할 예정이다.

#### WSJ 기사

### CNBC: Top Wall Street execs are getting skeptical on the Fed's easing path

#### 일부 월가 CEO,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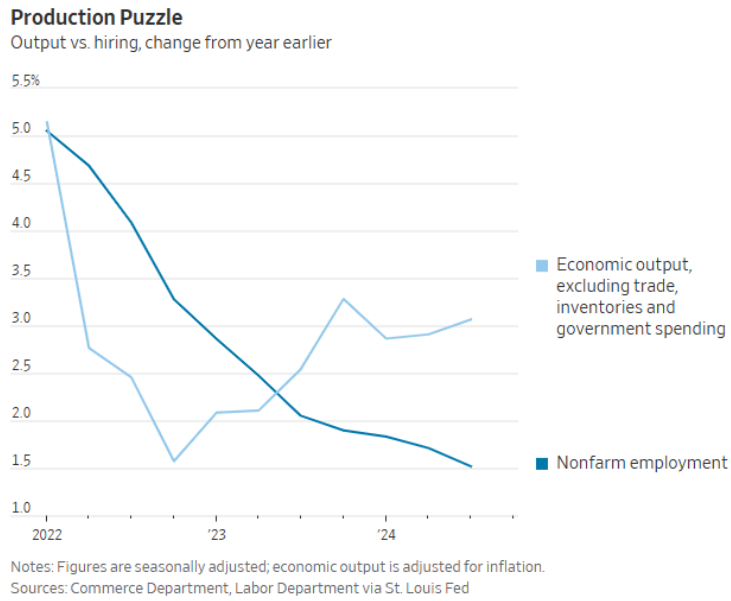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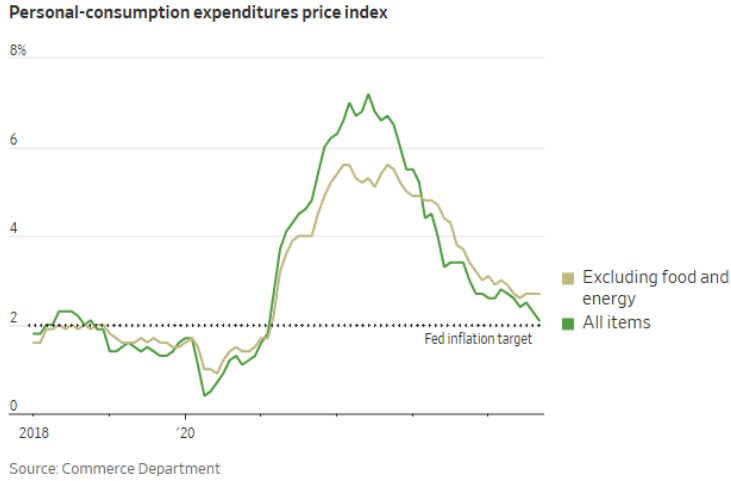
- 주요 월가 CEO 들은 미국 경제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 압력을 보고 있다. 연준이 올해 두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 CME Group의 FedWatch는 11월에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을 98%로 보고 있으며, 12월에 0.25% 인하 가능성도 78%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요 월가 CEO들은 미국은 앞으로 인플레이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미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인해 공공 투자, 자국 제조업 지향 정책, 관세 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 진작책이 시행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일부 CEO들은 올해 두차례 연준 회의에서 한 차례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CNBC 기사

### WSJ: Fed Prepares Rate Cut Amid Economic Contradictions

#### 연준, 이번 주 0.25% 금리 인하하지만 '내심 복잡한 상황'

- 연준은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 7일에 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최근 경제는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노동시장은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 지출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수개월간 연준 내부에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리 결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해야 한다.
- 그리고 선거 결과가 이번 연준의 11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향후 경제 전망을 바꾸는 새로운 대통령과 의회가 연준의 금리 결정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



WSJ 기사

### [미국 대선]

## Bloomberg: Taxes, Tariffs and More: 5 Key Economic Stakes of the US Election

### 미 대선의 세금, 관세 정책 등 주요한 이슈들

#### 과세 정책

- 바이든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초과근무 수당,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대한 과세 폐지를 주장했다.
- 해리스는 40만불 연소득에 대한 트럼프의 2017년 감세안만 연장하고, 부유층 감세 조치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법인 소득세율도 올리고, 억만장자에 최저세를 부과하고, 자녀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소기업에 감면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 관세정책

- 해리스는 바이든의 무역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시사했다.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 공약은 소비자들에게 국가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과 똑같다

고 비판했다.

-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최소 관세, 그리고 중국산에 60% 이상의 관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부과 시 미 GDP가 0.8% 감소하고,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두 후보 모두 일본의 유나이티드 철강 회사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 에너지 정책

- 트럼프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일과 천연가스, 석탄 생산의 규정을 완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든의 지원금 제공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 해리스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공공 토지의 보호 등을 강조했다.

#### 연방 적자

- 두 후보 중에 누가 재임해도 연방 재정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재임 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 연방 적자는 가계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더 높은 금리와 차용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 연방 적자는 해리스 집권 시 향후 10년간 3조9천5백억불, 트럼프의 경우 7조7천5백불로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추정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Harris, Trump Hit Battlegrounds as Polls Signal Tight Finish** **미 대선 여론 조사,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합주에서 거의 근소한 차이**

-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월요일 유권자들의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ABC News 및 Ipsos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49%와 46% 지지율을 보였다. 어제 일요일 뉴욕타임스와 Sinena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7개의 경합주에서 5개 주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전히 해리스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일요일 NBC 뉴스 여론 조사에 따르면 49%대 49% 동률로 나타났다.
- 선거 막바지에 해리스는 흑인계 업체들과 미시간 주립 대학에서 발표를 했다. 반면에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Bloomberg 기사

**[주택]**

### Bloomberg: Typical US Homebuyer More Likely to Be Older, Single and a Woman

#### 전형적인 주택 소유자는 노인층, 싱글, 여성이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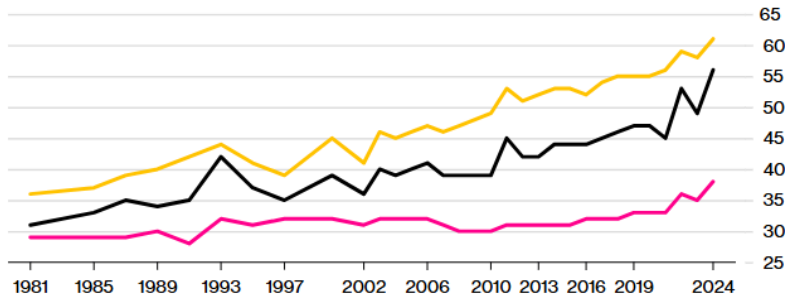
- 전형적인 미 주택 구입자는 연령층이 56세로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대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경우 주택 구입이 힘든 상황이다. 연령층이 높을 수록 현금 구입이나 더 많은 다운페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 주택 구입 비율은 24%로 가장 낮았고, 첫 주택 구입 평균 연령층은 38세로 1980년대보다 10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미부동산협회는 밝혔다.
- 또 주택의 20%는 싱글 여성이 구매했다. 싱글 남성의 경우는 8%에 불과했다.

#### Older Buyers

#### Median Age of US Homebuyers

Typical first-time buyer is 38, up from 33 before the pandemic

▲ All Buyers ▲ First-time ▲ Repeat



Sourc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2024 Profile of Home Buyers and Sellers

Bloomberg 기사

#### [오일]

### WSJ: Oil Price Jumps After OPEC Delays Supply Increase

#### 유가 상승... OPEC+ 증산 계획 연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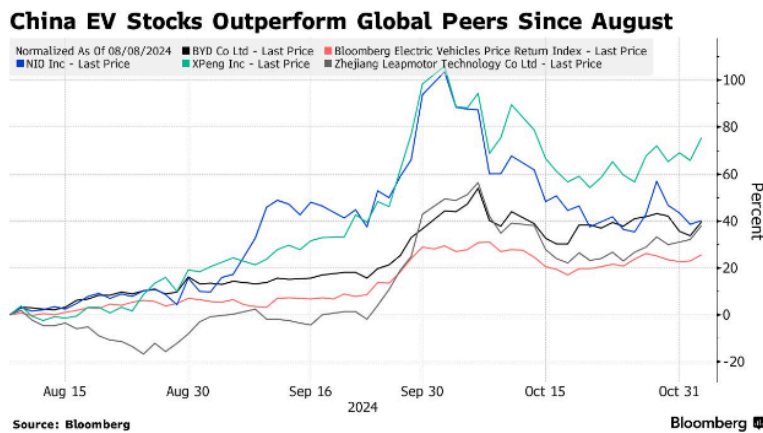
- 유가가 2% 이상 상승했다. OPEC+가 증산 계획을 한 달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브렌트유는 2.5% 상승한 배럴당 74.96달러에서 거래됐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8% 상승한 배럴당 71.43달러에서 거래됐다.
- OPEC+는 지난 주말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2024년 10월 시작될 예정인 증산 계획은 석 달째 연기됐다.
- 중국의 수요 둔화와 오일 공급 과잉 우려가 유가 상승을 막고 있었다. OPEC+는 시장 점유율보다 가격 상승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BS 전략가 Giovanni Staunovo는 OPEC+가 시장에 공급 과잉을 원치 않아 '신중하고,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 [전기차]

#### Bloomberg: China EV Stocks Rally After Strong October Delivery Growth 중국 전기차 주식 랠리, 10월 판매량 증가

-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정부 보조금 지원 덕분에 10월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주식이 급등했다.
- 지난달 50만대의 전기를 판매한 이후 BYD의 주가는 월요일 홍콩 오전 거래에서 5.6% 상승했다. Xpeng과 Geely Automobile Holdings도 6% 이상 상승했다.
- 중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7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가솔린 차량 구매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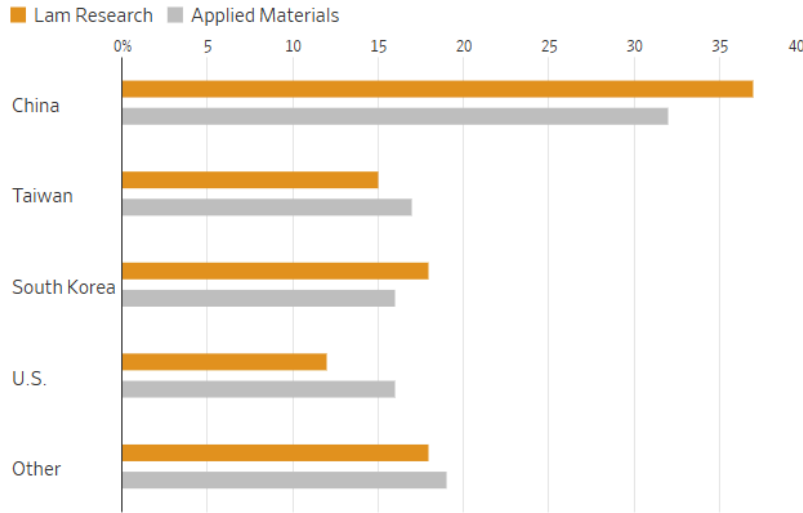
### [반도체]

#### WSJ: U.S. Chip Toolmakers Move to Cut China From Supply Chains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 미국 반도체 업계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조달하는 특정 부품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투자자나 주주를 허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 중국 수출입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두 대선 후보 모두 규제 강화를 공약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의원들은 중국이 최첨단 칩과 반도체 장비를 갖지 못하도록 배제했다.
- 하지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게 중국 공급업체와 중국 시장의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pplied Materials의 공급업체 Shenyang Fortune Precision Equipment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고객들을 기대하고 올해 싱가포르에 공장을 열었다. 하지만 중국 자본 문제로 Applied Materials와 공급 계약을 미국 상무부에게 승인받지 못했다.

**Big customer**

Percentage of sales by region at big semiconductor-equipment makers



Note: most recent quarter  
Source: the companies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TGI Fridays files for bankruptcy  
TGI 프라이데이 파산 신청**

- 미국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가 토요일 챗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TGI 프라이데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재정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다. 파산 절차를 통해 브랜드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TGI 프라이데이는 팬데믹으로 몇 달 동안 실내 영업을 중지되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산층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270개의 매장을 보유했던 TGI 프라이데이는 2024년 1월 이후 계속 매장을 폐쇄하여 지난주까지 총 163개의 매장을 폐쇄했다.
- 레드 랍스터와 Buca di Beppo에 이어 TGI 프라이데이도 파산 신청한 레스토랑 체인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Buca di Beppo는 현재 파산에서 벗어났고, P.F. Chang의 경영진을 영입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Business 기사

**CNNBusiness: Wendy’s is closing 140 restaurants  
웬디스, 140개 매장 폐쇄**

- 패스트푸드 체인점 웬디스가 향후 몇 달 안에 140개의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지난주 목요일 밝혔다. 대신 비즈니스에 더 좋은 자리에 같은 수의 새로운 매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100개 매장의 폐쇄 발표가 있었다.

- 웬디스의 CEO Kirk Tanner는 “구식이고 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매장을 폐쇄할 것이다. 해당 매장들은 다른 웬디스 매장들의 평균보다 재무 성과가 훨씬 낮다.”라고 말했다.
- 이러한 폐점 조치에도 불구하고 웬디스의 6천개에 달하는 전체 매장 수는 유지되고 있다. 웬디스는 2022년부터 향상된 디자인, 새로운 픽업 창구, 업그레이드된 주방 기기,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춘 신규 매장을 건설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 WSJ: Burberry Shares Jump on Report of Potential Moncler Bid 몽클레르 입찰 가능성 보도 이후 버버리 주가 급등

- 몽클레르가 입찰할 가능성이 보도된 후에 버버리 주가가 급등했다. 파리의 패션 및 럭셔리 전문 매체 Miss Tweed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몽클레르가 전문 아웃도어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 버버리에 제안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몽클레르와 버버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 버버리 주가는 오전 거래에서 4.8% 상승한 850.80펜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버버리 주가는 40% 하락했으며, 회사는 브랜드 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버버리는 패션 브랜드 Michael Kors를 이끌었던 Joshua Schulman을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다.
- 버버리를 포함해 비교적 덜 부유하고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럭셔리 브랜드는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약한 수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중국 고객들의 명품 구매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버버리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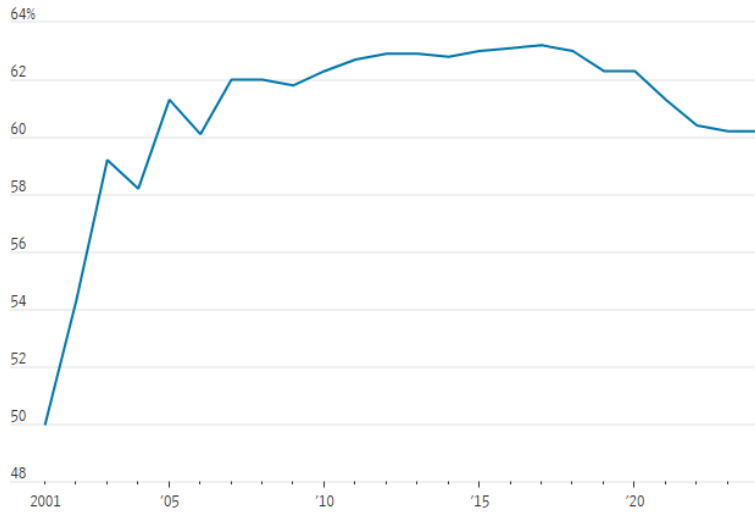
### WSJ: Whether 7-Eleven Is Bought or Not, Convenience-Store Consolidation Looms 앞으로 편의점 통합이 시작된다

- 미국 편의점 업계는 매우 분산되어 있어 10대 대형 체인의 시장 점유율도 20%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 전미편의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대형 체인들이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개인 소유의 중소형 매장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 편의점 업계 2위인 Circle K가 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세븐일레븐은 지난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M&A가 미국 내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세븐일레븐은 미국 내 7천개 이상의 매장을 인수했다. Circle K가 세븐일레븐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두 기업은 각자 다른 매장들을 인수할 계획이다. 편의점 통합이 시작되는 것이다.



**Slow Path to Consolidation**

Share of U.S. convenience stores that are owned by single-store operators



Source: NACS

WSJ기사

**[보고서]**

**[美대선 D-1] 트럼프냐 해리스냐..."누가 되든 단기 변동성 커질 것" 긴장감 높아진 미국 주식시장, 대선·금리결정 주목**

이번 주(11월 4~8일) 미국 주식시장은 대통령 선거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연준의 금리 결정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은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

5일 치러지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선은 금융 시장 전반에 변동성을 촉발해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